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



성덕대왕 신종

유안진

너무 깊고 너무 아픈 사연을 모아
부처님께 빌었어라
한 번 치면 서라벌이 평안했고
두 번 치면 천리까지 평안했고
세 번 타종하면 삼천리까지라
거기까지 신라 땅 되었어라
금수강산으로 수 놓였어라
어지신 임금님의 옥임이 되었어라
만백성들 아버지로 섬기었어라
끝없이 태어날 아기들을 위하여
끝없이 낳아 키울 어머니들을 위하여
한 어머니가 애아기를 공양 바쳐 빌었어라
적안고 부둥켜 안고 뭍부림쳐 빌었어라
에밀레 ~ 에밀레레 ~ 종소리 울렸어라.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유안진 시인은... 1965년(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달하), <다보탑을 쫓다>, <거짓말로 참말하기> 등

“새로운 반세기 이끌 종헌 필요”

법안 스님,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 세미나서

민주, 생명, 환경, 인권 등과 같이 시대의 요구와 사부대중 종단 운영 참여 확대 등의 내용과 과제가 종단 종헌에 담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4월 25일 열린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새로운 반세기기를 이끌 종헌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법안 스님은 종헌이 가지는 지위에 대해 짚었다. 스님은 “종헌은 종지 종통에 입각해 종단의 동화적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최고 규범이자 근본 규범”이라며 “1994년 개혁신당도 종도의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 운영 요구를 종헌에 반영함으로써 출범했다. 종헌이 종단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종헌은 1962년 3월 22일 제정돼 25차례 걸쳐 개정되면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왔지만 실재화가 미흡하다고 법안 스님은 지적했다. 스님은 향후 종헌에 답해야 할 과제로 △총명, 종지 문제에 대한 논의 △종단 운영에 있어서 사부대중 참여

확대 △종도들의 참종권 확대 △정치 중심의 종단 운영 폐해 극복 △종단 사회적 역할 △분사주지 선출에서의 교구 대중 참여 확대 등을 꼽았다.

종단 운영에 사부대중 참여 확대에 대해 법안 스님은 “비구승으로 특정하고 있는 종헌 기관 등 주요 종정 기관의 구성원 자

종단 운영, 사부대중 참여 '화두'
영담 스님 교구제도 개선 제기

격 조건 완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성별의 문제가 아닌 승려의 능력과 자질로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의 길을 확대하는 게 종헌 정신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정치 중심의 종단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지방 불교를 강화하고, 현재의 삼권 분리 체제의 유효성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구 지치 강화를 위해 중앙 권력을 지방



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조계종 교구제도와 사찰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현재 교구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진단했다.

영담 스님은 현재 교구분사제가 △관할 구역 불분명 △유명 무실한 교구총회 △총무, 기획, 교무 등 7직의 부재 △찾은 총무원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저하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구 중심의 사찰 행정이 이뤄져야 하고, 중앙총무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게 영담 스님의 주장이다.

권한 이양 시 중앙 기관의 행정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스님은 “정부는 기업이든 강해지는 비결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총무원의 경우 대정부 분야와 국제·통일, 복지 분야 등 굵직한 업무만 상시 업무로 한다면 행정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사업 확대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조계종 종명이 가지는 역사적 위치의 고찰을 통해 통합종단의 출범 의미를 찾았다. 김 교수는 통합종단의 의미로 △조계종 종명 채택을 통한 한국불교역사를 대표하는 종단 위상 확보 △정적 비구 승단 유지 등을 꼽았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조계종의 활동과 전망'을 주제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정스님과 대중 소통 이끌 터”

종정예경실장 효광 스님, 예경실 역할 밝혀

진제스님 종정상은 '입전수수'
간화선 세계화에 마지막 원력

“예경(禮敬)의 어원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심대서원이 있는데 그 중 첫 서원이 '예경제불원(禮敬諸佛願)'입니다. 예경실은 첫 번째로 종정 스님을, 두 번째로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 것입니다. 그것이 예경실의 역할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공식적 의견을 책임지는 종정예경실장 효광 스님(사진)은 4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경실의 역할을 종정 스님과 대중은 받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말머리를 풀었다.

효광 스님은 “어떤 일을 꾸미고 만드는 것보다 종정스님과 대중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묵묵히 해 나겠다”며 “종단과 종정스님이 지시한 사안에 대해 잘 받들겠다. 무엇보다 '예경제불원'의 서원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몇 번에 걸쳐 강조했다.

효광 스님은 진제스님의 종정상으로 '입전수수(入塵垂手)'를 들었다. 심우도의 마지막인 입전수수는 깨달은 선지식이



신학자 풀니터 교수와의 대화와 이어진 의미로 조사의 72가지 중 마지막 기풍이다. 진제 스님의 향후 원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종정 추대 전부터 세계적 범위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때마다 진제스님은 간화선의 세계화를 강조했다. 효광 스님 역시 종정스님의 마지막 원력은 '간화선 세계화·대중화'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정 재임기간 동안 '국제 무차선 범회'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효광 스님은 “종정 스님께서 간화선 세계화의 원력을 드러내신 것은 세상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자비심의 발로”라고 설명했다.

무차선 범회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80노구라 전면에 나서 범회를 준비하시는 것은 무리”라며 “총무원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종단 사찰 관리 법적 기준 마련

조계종, 17일부터 사찰법 및 시행령 시행

조계종 종단 내 사찰 등록·관리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들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12일 '사찰법 및 사찰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고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종단 사찰들은 '사실사업 등록 및 관리법'에 의해 그 기준과 창건주 승계 등만 관리돼 왔으나, 이번 사찰법 제정으로 사찰의 정의, 구분, 기능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조문화됐다. 장기간 주지 부재 시 교구분사 주지나 총무원장이 주지를 임명할 수 있게 해 사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사찰법과 사찰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예비 등록제 △지역 관할 교구분사로 사찰 등록 △창건주 승계 원칙 및 절차 △창중주제도 도입 △산내암자·포교소 관리 방안 마련 △미등록사찰사업 정제제도 명문화 △공공화 공동화 방지책 마련 등이다.

특히 문제가 많았던 사실사업의 창건주 권리와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큰 의의다. 사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계종 승려 전체에서 은사, 도제, 사형사제 등으로 한정해 승계 원칙을 마련했다. 창건주 권리 상

실에 대해서도 명문화 해 창건주가 탈종했을 때 당해 사찰을 공할로 귀속시킬 수 있게 했다.

그간 처벌 조항이 미비했던 미등록사실사업 관리 제한도 강화된다. 사찰법 제31, 32조에는 '미등록 사실사업의 소유자, 창건주 관리자, 실질 운영자는 관리 제한과 공권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하고 사찰 일체의 재산을 사찰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공권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들과의 관계 정립은 총무원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선학원의 경우 법인법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있지 않아 300개소의 사찰이 미등록 사실사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원이나 산내 암자가 독립적 지위를 부여한 부분은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박종학 총무원 사찰교무팀장은 “법 제정이 애초 의도한 것과 많이 달린 부분이 많다. 총무원 정책 방향과 맞게끔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9월 중앙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봉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주지 진산식 행

귀의 삼보하옵고,

봄 기운이 가득한 날,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에서는 주지 수불스님의 진산식이 있습니다. 부디 법단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격려와 축하로 깨어있는 도량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불기 2556년 5월 좋은 날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장 범산 합장



조계문(보물 1461호)

■ 일 시 _ 불기2556(2012)년 5월 7일(월) 오전 10시

■ 장 소 _ 범어사 대응전 앞

※ 화환은 일체 정중히 사절합니다. 단, 불우이웃돕기 쌀 보시는 받습니다.
자비의 쌀 나누기(계좌: 부산은행 241-01-002070-1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 행사 문의 : 범어사종무소 ☎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梵魚寺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